

광주시, 광주비엔날레에 ‘기관경고’

‘세월오월’ 전시 논란·20주년 특별전 파행 책임

인사·전시 부적절 업무추진 등 11건 감사 적발

광주시가 대통령을 풍자한 흥성담 작가의 걸개그림 ‘세월오월’ 전시 논란과 비엔날레 20주년 특별전시회 파행 책임 등을 물어 재단법인 광주비엔날레에 ‘기관경고’를 했다.

또 기간제 근로자 수십명을 특별 채용하고, 계약업무 등을 부당하게 처리한 사실 등이 드러나 직원 10명이 징계 등의 조치를 받았다.

23일 광주시의 광주비엔날레재단을 감사 결과에 따르면 시는 지난 2월 25일부터 8일간 재단법인 광주비엔날레를 대상으로

한 감사 결과를 지난 21일 시 홈페이지(www.gwangju.go.kr)를 통해 공개했다.

시는 감사 보고서에서 “시 보조금으로 제작된 광주비엔날레 20주년 기념 특별프로젝트 작품의 제작과정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물의를 일으키고 작품 전시도 하지 못해 ‘기관경고’한다”고 밝혔다.

또 광주비엔날레 이사장에 대해서는 “앞으로 작품 제작 과정에 자세히 확인·점검해 전시기획과 크게 반하는 작품에 대해서는 작품 제작협의서의 내용에 따라

즉시 적절한 조치를 해 작품 전시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하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광주시는 지난해 8월 열린 비엔날레 20주년 특별전을 위해 흥 작가에게 제작비 5000만원을 지원했으나, 작품 속에 대통령과 비서실장을 풍자하는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것을 확인한 뒤 수정을 요구하면서 ‘표현의 자유’ 등을 놓고 논란이 됐다.

결국 ‘세월오월’ 작품은 전시 유보에 이어 흥 작가의 전시 철회 의사로 전시 자체가 무산됐다.

광주시는 이 밖에도 회계 및 인사, 전시분야 등에서 11건의 부적절한 업무추진 사례를 적발하고 10명(징계 5명·경고 5명)에 대해 조치할 것을 광주비엔날레에 통보했다.

광주비엔날레는 지난 2012년 6월1일부터 2013년 9월16일까지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면서 서류전형이나 면접 없이 부서의 추천 등을 통해 24명을 특채한 사실이 확인돼 감사에서 지적받았다. 광주시의 무기계약 근로자·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는 채용예정인원·업무 내용·자격·채용조건 등을 7일 이상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고 사용 부서의 추천만 받아 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광주비엔날레 개막식 행사 등의 계약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직원 5명을 징계 조치토록 했다.

박옥창 광주시 감사관은 “이번 광주비엔날레의 사례처럼 관행화돼 있는 부당한 업무 추진과 시 예산이 반영된 보조금 등을 부적절하게 집행하는 것만큼은 반드시 근절될 수 있도록 강력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박진표기자 lucky@

광주~함평 버스 운행정보 안내

광주시 내년 상반기까지 14억 투입 안내기 설치

광주~함평 간 버스노선에 버스 운행정보 안내기가 설치된다.

23일 광주시에 따르면 내년 상반기까지 총 사업비 13억8000만원을 투입해 광주~함평간 광역버스정보시스템(BIS)을 구축한다.

광주~함평 간 노선은 함평터미널~광주 송정역~광천동 버스터미널을 운행하는 노선이다.

시는 다음달까지 정류장 이용자 수, 버스 노선 수, 환승 여부 등을 고려해 버스 운행정보 안내기(BIT) 신규 설치 정류장을 결정하고, 오는 10월께 설치 업체를 공개 입찰한 뒤 내년 상반기 중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광주시의 광역버스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은 지난 2009년부터 생활권이 인접한 인근 5개 시·군과의 이동권 보장

을 위해 국비 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나주, 담양, 장성, 화순 등 4개 시·군과는 구축을 마무리하고 운영중이다.

시는 지난 2006년 준공영제 시행 이후 총 2201개 정류장 중 21%인 451개 정류장에 버스 운행정보 안내기를 설치해 도착 안내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시내버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인근 시·군과 광역버스정보시스템 구축을 적극 추진하고, 버스 운행정보 안내기 설치 정류장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며 “기존 설치된 LCD도 모니터도 화면 선정을 등이 낫다는 지적에 따라 LED로 교체하는 등 서비스를 개선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광주지원(지원장 이병일)은 최근 자연재해로 삶의 터전을 잃은 국제사회 기후난민 어린이를 돕기 위해 ‘희망을 그리고, 희망을 입고’란 주제로, 희망티셔츠에 희망을 그려 넣는 행사를 가졌다. 광주지원은 약 350일분의 ‘영양결핍 치료식’과 ‘직접 그린 희망T’ 100여장 및 희망엽서 등을 제작해 전국 재해구호협회를 통해 지원할 예정이다. <신평연 제공>

광주시, 학교급식 식중독 예방 일제 점검

광주시는 “24일부터 내달 4일까지 개학철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학교 급식소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학교 급식소와 급식소 식품납품업체, 학교 매점 등 221곳을 대상으로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광주시가 주관하고, 5개 구청, 광주식약청 식품위생감시원, 교육청 학교 급식 담당, 시민감시단 등으로 구성된 5개반 21명이 참여한다.

점검받은 학교 급식소 식재료의 구입,

보관, 조리, 배식 등 단계별 위생관리, 조리 종사자 건강진단과 위생적 취급 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식중독 예방을 위해 세균오염도측정기(ATP)를 활용한 현장 교육, 식중독균 오염 우려가 있는 조리기구와 음용수를 수거해 검사한다.

또 학교 급식소에 식재료를 납품하는 업소, 매점의 식품 관리와 보관 실태, 유통 기한 경과 제품 판매 행위 등도 점검한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광주세계김치축제위원회 ‘배추 모종 심기’

27일 광주김치타운 야외텃밭

광주세계김치축제위원회(위원장 남성우)는 “오는 27일 제22회 ‘김치축제’의 사전 홍보행사의 하나로 축제 장소인 광주김치타운 내 야외텃밭에서 배추모종 심기 행사를 한다”고 23일 밝혔다.

모집인원은 선착순 50가족(100여명)이며, 모종 심는 방법을 교육받은 뒤 텃밭에서 직접 배추모종을 심게 된다.

참가를 희망하는 시민은 광주시 홈페이지(www.gwangju.go.kr), 광주세계김치축제 홈페이지(http://kimchi.gwangju.go.kr), 김치타운 홈페이지(http://kimchitown.gwangju.go.kr)를 참조해 광주세계김치축제위원회(613-3993)로 접수하면 된다.

한편 제22회 광주세계김치축제는 10월24일부터 28일까지 5일간 광주김치타운에서 열리며, 야외텃밭은 축제 기간 야외학습장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시청 민원실서 인감증명서 발급

광주시 전국 처음...9월부터

9월부터 광주시 민원실에서도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시는 “9월1일부터 전국 시·도 중 최초로 시청 민원실에서 인감증명서 등 자치구 소관 증명명을 발급하는 ‘시민 행복민원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시민행복민원서비스’는 현재 자치구(동)에서만 발급하는 인감증명서를 시청 민원실에서도 발급하는 원-스톱(One-stop) 민원서비스다.

시는 이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그동안 시스템을 구축하고 직원 파견 근무 등 서구청과 협의해왔다.

한편, 광주시 민원실에서는 주민등록 및 가족관계등록부, 지방세 납세증명서 및 세목별과세증명서, 토지 및 임야대장, 개별공시지가확인원, 지적도 및 임야도,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건축물대장, 자동차등록원부 등 구청 민원실에서 발급하고 있는 각종 증명서를 무인민원 발급기 및 팩스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 서민금융·일자리·복지주거·부동산 거래 관련 상담과 토요일 낮 12시까지 여권신청도 접수받고 있다. /박진표기자 lucky@

광주 성인 4581명 ‘건강조사’

시, 11월 8일까지

광주시는 “오는 31일부터 11월8일까지 70일간 광주지역 19세 이상 성인 4581명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한다”고 23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질병관리본부에서 표본 추출해 선정한 만 19세 이상 성인이며, 사전 교육을 받은 조사원이 복장과 신분증을 착용하고 표본가구를 직접 방문해 전자 조사표(CAPI)가 탑재된 노트북을 이용, 조사 대상자를 1대1 면접 조사한다.

조사 항목은 18개 영역 총 211개 문항으로, 건강행태(흡연, 음주, 안전의

식, 운동 및 신체활동, 영양 등), 건강검진 및 예방접종, 만성질환 유병여부, 의료이용, 사고 및 중독 등 지역 사회 건강 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내용들이다.

조사 결과는 향후 지역보건사업계획 수립과 주민의 건강 향상 프로그램 개발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지난해에는 4619명이 조사(참여율 100%)에 참여한 결과 광주지역 흡연자 금연 시도율은 32.1%(전년대비 4.2%증가), 고혈압 의사 진단 경험률 18.7%(전년과 동일) 등으로 전국 평균보다 우수한 결과를 보였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상무지구에 삼희불낙이 2개인 이유를 아십니까?

삼희식당, 삼희불낙

“삼희식당, 삼희불낙”은 1971년도에 중장로5가에서 김순례 할머니가 상호와 요리를 최초로 개발하여 사용하였으며, 현재까지 44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김순례 가족들의 가업입니다.

삼희불낙이 상무지구에 2개인 이유

광주 상무지구에 삼희불낙이 인근에 나란히 2군데 있어서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는데 최초개발자 김순례 할머니가 직접 운영중인 매장은 이마트 옆의 “원조삼희불낙”입니다. 그리고 롯데마트 옆의 삼희불낙은 이혼한 셋째며느리가 운영중입니다.

삼희불낙은 상표분쟁 중

현재 김순례가족과 이혼한 셋째며느리 사이에는 상표소송이 진행중입니다. 김순례 가문에 며느리로 들어와 살면서 김순례할머니가 개발한 요리와 상호의 가치가 엄청나다는 것을 알고 상표를 빼앗으려고 특허청에 “삼희불낙, 삼희식당”이라는 상호와 로고는 자기가 개발한 것이라고 말도 안되는 등록신청을 한 것입니다. 재혼하면서 “삼희불낙” 상호를 사용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되어 계획적으로 “삼희불낙”이라는 이미 마려된 반석을 도둑질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44년 전통과 역사를 가지고 있는 원조 개발자인 척 허위광고를 하고 서울, 인천 등에 점포를 개설하여 가맹점을 모집하는 등 소비자를 속이고 있습니다. 이제 자신의 나이가 40세인 사람이 44년 식당업을 했다고 억지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순례할머니의 삼희불낙

김순례할머니는 하루도 쉬지 않고 새벽이면 좋은 재료를 사기 위하여 시장에 다녀오고 손님을 접대하고 있으며, 식당업이 아닌 다른 길을 가지 않았으며, 이윤만을 추구하여 사람을 현혹시켜서 장사를 하지 않고 푸짐한 요리를 제공하여 왔습니다. 현재 나이가 74세임에도 가게를 지키면서 생활한다는 것은 장인정신이 없이는 안 될 것입니다.

김순례할머니의 삶의 전부와 같은 “삼희불낙”을 이혼한 셋째며느리가 자기가 개발한 것이고 원조라며 비인간적이고 패륜적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김순례할머니가 살아있는 한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많은 사랑을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고개숙여 감사드리며 대한민국 맛집들이 많이 겪는 상기 사건에 대해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진실과 도덕이 존재하는 사회가 되기를 기원하며, 전통을 지키는 맛집 삼희불낙의 창업자 김순례 올림

원조삼희불낙
☎ 062-372-2232
광주시 서구 치평동 1220-2번지 리치니스빌딩 1층



김순례 할머니